송원산업, 고순도 이소부틸렌 증설

송원산업이 고순도 이소부틸렌(Isobutylene) 생산능력을 4만톤으로 확대한다.
폴리머 첨가제 생산기업인 송원산업은 끊임없는 공정 개선을 통해 울산 매암에서 이소부틸렌 3만톤 공장을 2009년 5월 가동했으며, 최근 생산능력을 4만톤으로 확대했다고 6월3일 발표했다.
송원그룹 박종호 CEO는“ 약 1년 전 세계최초로 TBA(t-Butanol)를 원료로 사용해 이소부틸렌을 상업생산한 지 1년이 지나지 않아 생산 및 에너지 효율의 극대화를 통해 생산능력을 30% 이상 확대했다 ”고 설명했다.
이어“ 원료 수직계열화를 통해 이소부틸렌 공급을 외부에 의존하지 않아 유가 변동에 극심한 영향을 받지 않고 자체 생산만으로도 공급이 안정될 것 ”이라고 덧붙였다.
송원산업은 이소부틸렌 증설을 통해 첨가제 사업에서 지속적인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화학저널 2010/6/14>